

##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

신 현 수 · 민 성 환  
(연구위원 · 동향분석실) (전문연구위원 · 동향분석실)  
ktshs@kiet.re.kr shmin@kiet.re.kr

### 〈요 약〉

2003년 하반기부터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의 경제 향방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품목별 가격 상승률을 보면, 금속제품이 2003년 하반기 중 34%로 가장 높고, 이어서 곡물, 원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국제원자재 가격의 강세 원인으로는 세계경기의 회복 가속화, 미 달러화 약세 지속, 그리고 유가 강세 여파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상승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추가 상승의 강도가 약해질 수는 있어도, 세계경기의 회복과 원자재 수급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강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연관표」(2000년)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석유화학제품 가격 8%, 철강 가격 20%, 비철금속 가격 20%의 상승을 가정할 경우 생산자물가는 0.62% 포인트, 소비자물가는 0.26%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출가격함수와 수출물량함수를 추정한 결과 생산자물가 0.62% 포인트 상승은 기업이 생산비 상승요인을 전부 수출단가로 전가시킬 경우 금년 중 우리나라 수출금액을 7억 달러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가 연평균 기준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최근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확보난과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자재수급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1.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동향

### (1)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추세 지속

2003년 하반기부터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경제 향방의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로이터(Reuter)사와 미 상품조사국(CRB)이 발표하는 원자재 선물 가격 지수(Reuters-CRB Future Index)는 2003년 하반기에만 연간 전체 상승률(8.9%)보다도 높은 9.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2004년 들어서는 지난 2월 말까지 동 지수가 7.6%나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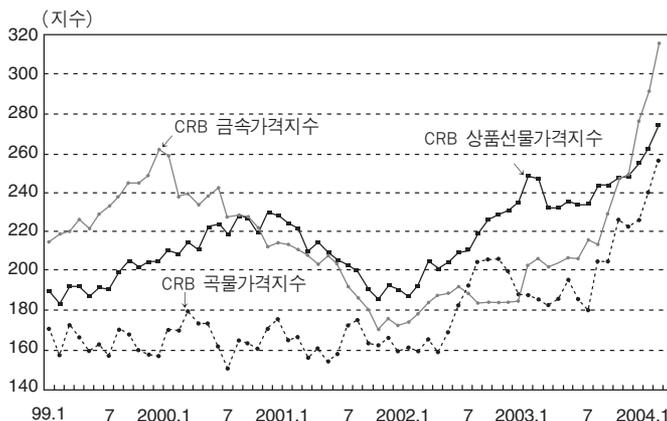
### (2) 품목별 상승률은 금속제품 가격이 최고, 곡물, 원유 등의 순서

품목별로 보면, 2003년에는 금속제품의 가격상승률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곡물, 원유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금속제품 가격은 2003년 하반기에 34% 상승하여, 연간 전체로 50%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고, 상반기(-1.4%)에 하락세를 보인 곡물 가격도 하반기에 22% 상승하여 연간 2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 들어서는 2004년 2월 말 현재 금속 가격과 곡물 가격은 각각 14.3%, 13.6% 추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속제품 가운데서는 철강 가격(CRU Global Steel Price Index)이 3월 현재 지난해 같은 시점에 비해서 무려 40%나 높은 수준에 있다. 국제원유 가격도 미 서부텍사스 중질유(WTI) 기준으로 2003년 하반기에 8% 상승하여 여타 품목들의 가격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낮은 편이지만, 이라크전 종결에 따른 불확실성 완화라는 긍정적 요인을 제대로 반영해 주지 못하고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림 1〉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추이



자료 :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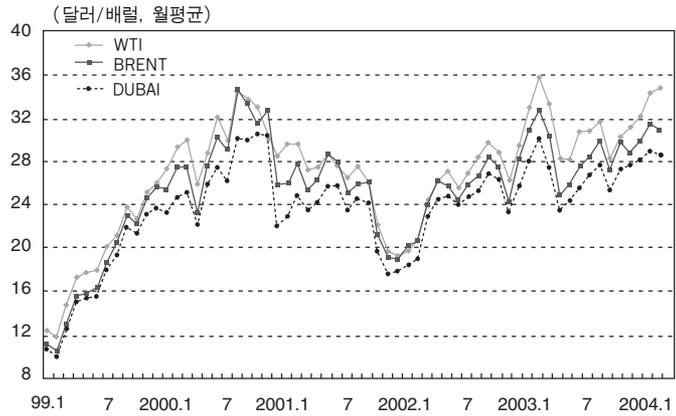
## 2.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원인

### (1) 세계경기 회복 가속화, 미 달러화 약세 지속

원자재 가격이 당초 전망과 다르게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이 예상외로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데다, 중국경제가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원자재 수요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라크전 개시, 사스(SARS,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확산 등의 여파로 세계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이 예상되었으나, 각국의 성장률 실적치를 보면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 미국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급속도

로 증가하면서 성장률이 2003년 3분기에 전분기 대비 8.2%(연율)까지 높아졌고, 연간 전체로는 2002년(2.2%)보다 높은 3.1%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호조를 보였다. 일본도 2002년의 마이너스 성장(-0.4%)에서 벗어나 2003년에는 2.7%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유로경제도 2003년 3분기에 1.6%(전기비 연율) 성장하며 2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률을 회

〈그림 2〉 국제 원유가 상승 추이



자료 : Reuters.

〈표 1〉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

	2002					2003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 국	2.2	4.7	1.9	3.4	1.3	3.1	2.0	3.1	8.2	4.1
일 본	-0.4	-1.7	4.9	4.0	-0.2	2.7	2.2	3.5	2.5	6.4
유 로	0.9	1.5	1.9	0.9	0.2	0.4	0.0	-0.2	1.6	1.2
중 국*	8.0	7.6	8.0	8.1	8.1	9.1	9.9	6.7	9.6	9.9

자료 : 각국 정부 발표 기준.

주 : 전기비 연율 기준. 단, \*는 전년동기비 기준.

복했다. 개도국 가운데서는 중국이 지난해 하반기 들어서 생산과 투자가 급증하며 9%대의 성장률을 회복하는 등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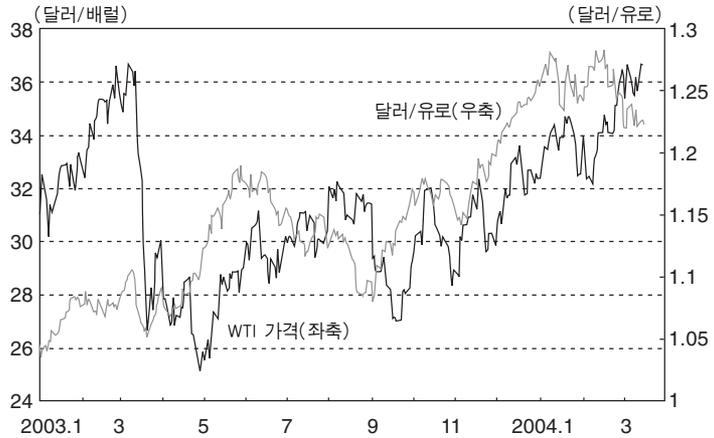
2001년 이후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지속, 미 달러화 약세 등으로 인해 대체 투자자산으로서 원자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원자재 수요를 촉

발시켜 원자재 가격을 상승시켰다는 주장도 있다. 외환시장에서 미 달러화 가치는 2003년 하반기에만 유로화 대비 8.7% 하락했고, 엔화 대비 무려 10.6%나 하락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에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04년 들어서는 미 달러화 가치가 2월 말 기준으로 유로화 대비 1.3% 상승한 반면에, 엔화 대비 1.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2) OPEC 감산 등으로 국제유가도 강세 지속

한편, 유가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원유 수요 증대를 비롯해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결속력 강화, 미 동북부 지역의 한파로 인한 낮은 재고 수준 영

<그림 3> 2003년 국제 원유가와 달러/유로 추이



자료 : Reuters.

향 등 때문이다. OPEC은 지난해 9월에 생산쿼터를 기존의 2,540만 배럴/일에서 2,450만 배럴/일로 감축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올 2월 총회에서는 100만 배럴/일의 추가 재감산을 결의하여 유가 급락 가능성에 미리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화된 결속력을 과시하고 있다. 또, 미 동북부 지역의 한파로 난방유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미국의 원유재고가 빠르게 소진(지난 1월 초에는 원유재고가 197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된 점도 유가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3.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의 회복 속도와 원자재 수급여건의

〈표 2〉 주요 기관별 2004년 국제 원유가 전망

단위 : 배럴/달러, %

기 관 (전망시점)	기준유종	2003	2004					평균(등락률)
			1/4	2/4	3/4	4/4		
ESAI (11월)	Dubai	26.37	21.60	23.60	24.20	23.70	23.28	(-11.7)
	Brent	28.49	24.30	25.70	25.80	25.50	25.33	(-11.1)
	WTI	30.57	25.70	27.70	27.70	26.90	27.00	(-11.7)
CERA (12월)	Dubai	26.74	26.67	25.50	24.00	24.50	25.17	(-5.9)
	Brent	28.78	28.17	27.00	25.50	26.00	26.67	(-7.3)
	WTI	31.00	29.67	28.50	27.00	27.50	28.17	(-9.1)
EIA(12월)	WTI	31.03	30.10	29.40	28.80	28.20	29.13	(-6.1)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변화 등이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가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라는 측면에서 그 향방을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점이다. 단기간의 지나친 급등세를 감안하면 향후 추가 상승의 강도는 다소 약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특히 유가의 경우에는 이라크전이 종결되면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는 점과 최근의 강세가 본래 동절기 한파 영향에 기인한다는 점, 그리고 이라크의 원유생산이 정상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 연평균에 비해서 다소 낮은 수준이 예상된다는 것이 주요 예측기관의 전망이다.

그러나 비철금속 가격은 선진국의 경기회복과 더불어 중국경제의 고성장이 지속되면서 두 자리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철강 가격은 2004년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CRU Steel사). 영국의 유력 경제기관 가운데 하나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하면, 브렌트 유가는 2003년 배럴당 평균 28.83달러에서 24.90달러로 하락(-14%)할 것으로 전망된 반면, 금속제품 가격(2003년 10.2%→2004년 12.3%)을 포함한 산업용 원자재 가격(2003년 12.3%→2004년 11.4%)은 두 자리대의 상승률이 예상되고 있다.

#### 4.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 (1)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물가 파급 효과 분석

수입품의 가격 변동은 우선적으로 당해 수입상품을 중간재로 투입하는

모든 상품가격의 변동을 초래하고, 이어서 이들 제품을 중간재로 사용하는 관련 제품들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수입원자재의 가격 변동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이들 수입원자재가 각 산업에 얼마나 투입되는가와 국내 산업에서 차지하는 산업별 비중에 달려 있다. 국내 산업의 수입원자재 비중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원자재 의존 비중이 높은 특정 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나타난다.

산업연관분석은 산업별 국내재와 수입재의 투입산출 관계를 나타내는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이러한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시한다.

## (2) 금년중 석유화학 8%, 철강 20%, 비철금속 20% 상승 전망

수입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해서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률에 대한 전망치가 필요한데, 앞 절에서 살펴본 국제원자재 가격 전망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기로 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년대비 기준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8%, 철강제품 가격 20%, 비철금속제품 가격 20%로 가정한다.

우선, 유가 변동과 긴밀하게 움직이는 석유화학제품 가격은 나프타 가격

의 상승세가 다소 약해지면서 전년대비 8%의 상승률이 예상된다. 석유제품 가운데 하나인 나프타는 지난 2월 평균 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2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유가 강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 이미 20%대의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추가 상승의 강도는 2003년에 비해서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금년도 유가(브렌트유 기준)는 지난해 연평균 배럴당 28.9달러보다 3% 가까이 하락한 28달러로 전망된다. 당초 대다수 전망기관들은 금년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OPEC이 2월 총회에서 이례적으로 감산을 결정한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유가의 하락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철강제품 가격은 중국의 철강 생산 증대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바, 선진국의 경기 회복과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 전망을 감안할 때 두 자리대의 상승률(20%)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평균 12%의 상승률을 기록한 철강 가격은 특히 중국의 철강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영향으로 금년 들어서도 강세(2월 평균 가격은 지난해 연평균 대비 20% 상승)를 이어가고 있다.

비철금속제품 가격은 앞 절에서 살펴본 EIU의 전망치인 12%의 상승률과 최근의 가격 상승세를 종합하여

20%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3)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생산자물가 연간 0.62% 포인트  
상승**

2000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산  
업연관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에 비해

금년 평균으로 석유화학제품 가격  
8%, 철강제품 가격 20%, 비철금속제  
품 가격 20% 상승을 가정할 경우 국  
내 생산자물가를 연간 0.62% 포인트  
상승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철강제품 가격은 생산자물가를  
0.28% 포인트 상승시켜 가장 큰 영향  
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었고, 비철금속

〈표 3〉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의 물가파급 효과

	철강제품 20% 상승	석유화학제품 8% 상승	비철금속제품 20% 상승	총효과
섬유제품	0.02	0.17	0.04	0.23
가죽제품 및 모피	0.04	0.15	0.05	0.24
목재 및 나무제품	0.04	0.09	0.04	0.16
펄프 및 종이	0.02	0.12	0.05	0.20
석유제품	0.02	0.03	0.01	0.05
석유화학제품	0.04	1.09	0.19	1.32
플라스틱제품	0.05	0.75	0.12	0.92
고무제품	0.11	0.68	0.13	0.92
비금속광물제품	0.08	0.14	0.07	0.29
철강제품	3.78	0.03	0.34	4.15
비철금속제품	0.06	0.04	7.57	7.66
금속제품	1.67	0.05	1.15	2.87
기계류	0.73	0.05	0.49	1.27
전기기계 및 장치	0.24	0.11	1.60	1.96
전자기기부분품	0.09	0.11	0.45	0.65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07	0.05	0.22	0.34
컴퓨터 및 사무기기	0.05	0.05	0.19	0.30
가정용 전기기기	0.38	0.10	0.35	0.83
정밀기기	0.13	0.08	0.33	0.54
자동차 및 부분품	0.60	0.11	0.37	1.08
선 박	1.26	0.05	0.28	1.59
기타 제조업	0.23	0.11	0.81	1.14
전산업(생산자물가)	0.28	0.11	0.23	0.62

주 :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이 해당 업종의 생산비 상승에 미치는 효과(% 포인트).

제품 가격도 생산자물가를 0.23%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유가의 10% 상승은 국내 생산자물가를 0.61%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석유화학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의 수입가격이 10% 상승하면 생산자물가는 각각 0.13%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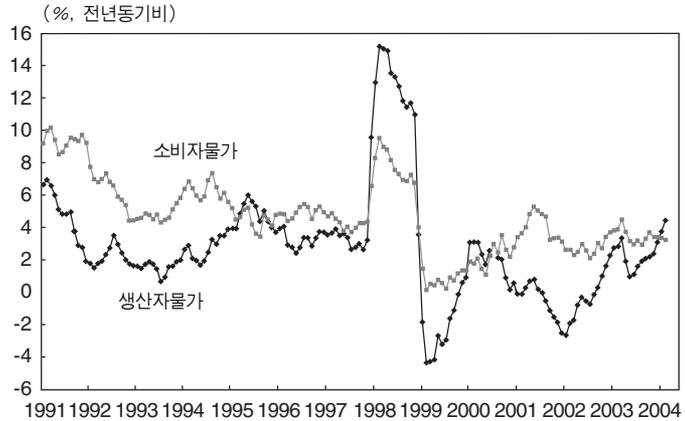
0.14% 포인트, 0.12% 포인트만큼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이 업종별 생산비에 미치는 영향은 비철금속제품이 가장 크고, 이어서 철강제품, 금속제품, 선박, 전기기계 및 장치,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및 부품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이 비철금속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35.3%인 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폭도 크기 때문이다.

#### (4) 생산자물가 1% 상승시 소비자물가 0.42% 포인트 상승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1990년대 기간 대상)

〈그림 4〉 1990년 이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 통계청(KOSIS).

에 의하면, 생산자물가가 1% 상승하는 경우에 국내 소비자물가는 0.42% 포인트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물가는 생산자물가에 후행하여 움직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림 4〉를 보면 그 추이가 서로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또, 1991년 이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상관계수는 0.67로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생산자물가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어느 정도 상승시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탄성치'(elasticity)의 개념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앞서 산출한 생산자물가의 상승 폭에 비해서 소비자물가의 상승 폭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의 구성 항목에

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중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생산자물가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가중치 비율은 70:30인 반면, 소비자물가의 경우에는 동 비율이 45:55로서 서비스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 이 탄성치가 1970년대 0.54, 1980년대 0.96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것은 1990년대 들어 기업들간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원가 상승분을 소비자들에게 이전시키지 않고 자체 비용으로 흡수시켰다는 주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철강, 석유화학제품, 비철금속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연간 0.26% 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5.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와 장기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품목의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 (1)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

단기적으로는 최근 철강 및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 상승은 이들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 경기 회복과 중국의 수요 급증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수출업체가 수출가격 상승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유가 급등으로 인한 석유화학제품 가격 상승과 중국의 수요 증가로 인한 철강 가격 상승은 국내 산업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가격이 금년 연평균 기준으로는 지난해에 비해서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도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산업의 생산비 증가 요인으로 이어져 수출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내수에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 물가 상승은 실질소득의 감소를 초래해 세계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가가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오르지 않는 한,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이 세계적인 인플레이를 초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생산자물가 1% 상승시 수출단가 0.28% 상승, 수출물량 0.45% 감소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수출단가와 수출물량에

미치는 효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즉,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기업의 생산비 증가를 초래하여 수출단가를 상승시키는 측면과, 수출단가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의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이 국내 생산자물가와 경쟁국의 수출가격, 원화환율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수출가격함수를 추정해 보면, 생산자물가 1% 상승은 수출단가를 0.28%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에 직면하여 생산비 증가 압력이 있더라도 일부만 수출가격 상승으로 전가시키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수출물량이 세계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수출가격 및 경쟁국 수출가격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여 수출물량함수를 추정해 보면, 수출가격의 1% 상승은 수출물량을 1.6% 정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 1% 상승은 기업들이 비용 상승분을 흡수하는 경우에 수출단가 0.28% 상승, 수출물량 0.45% 감소를 초래하여 수출금액 면에서는 0.17%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기업들이 생산비 증가 요인을 전부 수출단가로 전가시킬 경우 생산자물가 1% 상승은 수출단가 1% 상승, 수출물량 1.6% 감소를 가져와 수출금액 측면에서 0.6% 감소 효과를 발생시킨다.

### (3)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금년도 수출금액은 7억 달러 감소

지난해에 비해 금년 평균으로 석유 화학제품 가격 8%, 철강제품 가격 20%, 비철금속제품 가격 20% 변동을 가정할 경우 국내 생산자물가는 연간 0.62% 포인트 상승하여 생산비 상승 요인을 전부 수출단가로 전가시킨다 하더라도 수출금액은 7억 달러 감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기업들이 생산비 상승 요인을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일부만 수출가격으로 전가한다면,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출 감소 효과는 2억~3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산업 및 수출 구조가 IT 등 전기전자산업 중심으로 이행하고 있고, 이들 산업의 수입원자재 의존도가 상당히 낮은 데다,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격화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수출가격으로 전가하기보다는 자체 흡수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세계경제 성장률 등 해외 수요 여건이 불변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계경기의 성장 저하 측면을 고려한다면 수출 감소 효과가 더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수급상의 차질 등을 감안하면 실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더 커질 수 있다.

## 6. 시사점 및 정책 대응

최근의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은 세계경기 회복과 맞물려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 지속될 것이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원유가격이 2분기 이후에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물가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대기업들의 도입물량과 철강류, 일부 비철금속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은 장기 계약에 의하여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수급상의 문제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원자

재 가격 급등으로 원자재 확보 및 가격 상승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철강류와 일부 비철금속은 수급 불안이 있어 이미 발표된 수급안정화 대책(3월 9일)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번 수급안정화 대책의 주 내용은 국제가격 급등으로 수급상 애로요인이 발생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시행과 정부 보유 비축물량 공급의 확대, 가격 급등에 따른 공급 지연·매점매석·과도한 비축 등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그리고 수출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품목들(고철, 철근 등)에 대한 수출제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업계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가운데 정책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고, 가격 불안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동 조치들의 해제를 검토하는 등 정책상의 유연성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